

## 국무회의

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대하고 민주당 당적 정리. 정치 공세를 넘어서 상세히 설득하며 정기국회에 임해 주길

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. 어제 민주당 당적을 정리했습니다. 당적 정리는 별로 화급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당적을 정리하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공연히 정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일찍 정리했습니다. 한나라당에서도 이전에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당적을 이탈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습니다.

정당구조가 이렇게 변화된 마당에서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반응이 뜻밖이어서 놀랐습니다. 당장에 반응이 좋지 않으니깐 언론 등이 앞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걱정이 있습니다.

제 생각으로는 일시적 정치적 공세일 뿐 무 당적으로 있는 것이 정기국회 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 보다는 각 당의 입장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. 다만, 본시 국회 안에 정부를 뒷받침할 여당이 강하지 못했던 터라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무 당적이 되어 여러분이 더 어렵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.

그러나 제 생각은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면 잘 될 걸로 봅니다. 정치적 공방은 국회 밖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국회에서는 적어도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면 실제 각 당과 정부의 정책이 크게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.

대개 정부의 일이 어느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게 없고 경제나 민생, 행정개입의 문제라 실제로 정책에서는 당과 부딪히지 않습니다. 다만, 감정적 문제나 정치적 갈등 문제가 정책 결정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,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이 성실히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생산적이 되도록 노력합시다.